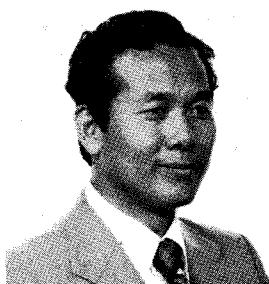


# 肯定的思考와 Office Action



陳今燮

&lt;在美韓國辦理士·藥學博士&gt;

01 제는 7年을 즈음하는 美國移民生活을 反芻해 보면서 筆者의 모습이 얼마나 달아졌나 생각해 보는 時間이 많다. 人生살이도 50줄이 넘어들고 보니 空手來空手去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나그네 인생 길이 저 富貴榮華를 누린 솔로몬王과 같이 “헛되고 헛되도다”를 연발하게 된다. 그러나, 美國人의 Positive Thinking(긍정적 사고)는 筆者가 한국에서 잔뼈가 굵어질 때에도 너무나 念願하던 일이기에 이제는 많이 體質에 培養되어 가는것을 느낀다.

자동차를 몰고갈 때 뒷차가 갑자기 추월하여 앞에 끼어들어도 이제는 속으로라도 욕대신 “얼마나 바쁜일이 있기에 이럴까” 오히려 동정의 마음마저 생긴다. 은행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현금을 인출할 때도 앞의 아낙네가 은행teller와 아무리 長時間 私談하고 떠들더라도 그의 말 할 自由를 만끽하는 자세에 오히려 승상이 가니 말이다. 한시간 거리의 New York, Washington 간의 비행기를 탔을 때 두시간 간동안 기내에 탑승시켜 놓고 떠나지 않고 있어도 그많은 승객중 단 한사람도 不平과 그 理由를 따지는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이들의 인내와 肯定的인 思考에 두손을 들었다는 美國을 잠시 방문한 어느 韓國牧師의 흥분된 간증을 들을때에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感動이 없었던 일은

지금도 기억한다. 아무리 女祿書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과실을 꾸짖는일은 생각지도 않고 일의 事後處理에 부심하는 우리 사무소의 Attorney(변리사)들을 볼때에도 이제는 “어떻게 저럴수가 있을까”하며 의아해 하고 신기해하지도 아니하니 말이다.

살아가는 삶의 現場에서도 否定的인 思考(Negative Thinking) 나 悲觀的인 言語가 희귀하다. 언제나 안면에 微笑를 띠고 “Yes, Yes!” 또는 “I Will try(최선을 다해 보지요)”, 만약 “No!” 할때에도 꼭 그뒤에 “Thank You”를 부쳐서, 예를들면 음식을 더 먹으라해도 “그만 먹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라고 웃으며 대답한다. 그래서 그런지 美國에서는 一般藥中消化劑가 거의 팔리지 않는단다. 너무나도 하찮은 일을 가지고 배꼽을 쥐어가며 웃고 장시간 담소를 하다가도 문득문득 “내가 왜 점잖지 못하게 이렇게 경망하게도 이들과 시시닥 거릴까”하면서 입을 꼭 다물고 근엄한 자세의, 굳은 표정의 옛날 筆者의 한국에서의 모습을 연상해 보면서 꾹 웃는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美國人이 되어가느가 보다”하며 또한번 꾹 웃는다.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미국 特許廳(USPTO)에 특허나 상표를 출원하면 심사관이 일차 심사후 Office Action(通知書)을 출원인이

나 그의 代理人에게 하게된다. 이 内容을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拒絕予告”이다. 왜 分明을 모토로 하는 이들이 “拒絕(Rejection)”이란 用語를 쓰지 않을까? 여기에는 깊은 真理가 숨어 있는 것 같다. 特許란 審查官이 주는 特許行政이 아니라 確認, 行政임이 世界的으로 공통된 法原理이다. 그렇다면 人類社會를 위하여 창작한 이 송고한 Idea에 감히 “拒絕”이란 用語를 쓸 수 있을까 말이다.

물론 그 分野에 專門人이라고 審查官을 自處하지만 神이 아닌 人間이 이 엄청난 發明 (Invention, Creation)을 審查 判斷한단 말인가? 審查官을 特許 · 商標登錄을 許與하는데 하나의 補助者(Helper)라면 極端의 으로 “않된다”라고 拒絕을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러기에 USPTO의 Patent Examiner(特許審查官), Examining Attorney (商標審查官)은 이 Office Action에 아주 소상하게, 分明하게, 그리고 특허 · 상표가 등록되는 方向으로 유도하는 文句를 나열하며 특허 · 상표가 등록되는 方向으로 Positive 面에서 많은 암시(hint)를 준단다. 따라서 이 Office Action에 겁먹을 하등의 理由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Office Action에 따라서 특허청구범위(Claim), 명세서 (Specification), 도면(Drawing) 을 補正하고 引用된

찬증에 Argument(논쟁)하면 특히 · 상표를 허여받는 것이 일수다. 필자는 주로 한국인 Client지만 다루고 있지만 거의 70%以上의 특허 · 상표 등록율로 얻어낸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이 Office Action을 2번째하면서는 으레히 Final(最後)이란 但書가 붙는다. 그래서 이를 Final Office Action (文字대로 번역하면 “最後拒絕”)이라고 한다. 수년 전 일이지만 어느 고지식한 韓國辨理士 한분이 이 通知를 받고 한국의 최후거절과 같은 줄로 알고 抗告할 쳐지도 못되고 해서 그만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는 판에 우리가 “Proposed Amendment”를 내서 특허사정을 얻어드리니 아연질색한 표정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이 Final Office Action이란 말은 이제는 最後拒絕이 아니라 이제는 더 Office Action 通知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이 Final Office Action에 치중하여 더 신중히 보정서를 넣을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나의 특허수속 절차에서도 “절대로 안돼”하는 극한적인 Action은 없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기회를 다시주는 여유있는 긍정적인 삶의 방식의 표현일 것이다.

또한 이 Office Action들에 대하여 “答辯書”라는 말을 쓰지 않고 “Amendment(補正書)”란 用語를 쓴다. 肯定의 인思考의 發想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답변서”하면 계속 보정할 수 있으며 계속 try해보는 뜻을 함축하고 있기에 말이다. 실제로 이 보정서(Amendment)를 낸 후 “Interview”를 하거나 또 몇번이라도 “Supplemental Amendment(추가보정서)”를 내서 어느 때라도 심사관이 OK하면 특허 · 상표등록이 되는 것이다.

이래서 이때 출원인(代理人)과 심사관의 關係를 우리들이 물건 흥정去來에 쓰는 “協商(Negotiation)”이란 用語를 쓴단다.

이와같이 사소한 特許行政의 用語自體도 Positive Thinking 유산 임을 본다.

단적으로 말해서 否定의이고, 비판적이고, 极端의 인思考의 우리나라의 現實을 볼때 나 한사람 한사람 未來에 對한 꿈을 가지고 肯定의 인思考下에서 당장에가 아니라 멀고 면 훗날을 생각하며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개인들의 밝은 삶을 영위한다면 한결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혼란이 가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오늘도 저 미국의 흑인 지도자였던 마틴 · 킹목사의 “have a dream”, “have a dream”的 외침이 필자의 귀청을 울리는 것을 의식하면서 肯定의인 삶을 살아 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

〈Washington BSKB 특허법  
률사무소에서〉